

주낙영, LCK 서머 결승전 경주시... '웃음꽃'

LCK 서머 결승전 성공 개최
LCK 법인과 맞손 행정 집중

경주시가 오는 9월 국내 최대 e스포츠 대회인 '리그 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 서머 결승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시는 9일 황룡사역사문화관에서 LCK 법인과 '2024 LCK 서머 결승전 개최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이정훈 LCK 사무총장, 이충현 라이엇게임즈 대외협력실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대회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했다.

업무협약에서 경주시는 시설 대관 및 숙박 지원, 경기장 인프라 구축, 홍보 및 마케팅 등 행정 지원을 맡는다.

LCK 법인은 홍보부스 입점, 시상, 중계방송 노출 등 대회의 전반적 운영과 경주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

2024 LCK 서머 결승전은 9월 6일 타임캡슐공원 일대에서 다채로운 이벤트와 볼거리로 구성된 팬 페스티벌로 시작되며 8일까지 열린다.

7일에는 실내체육관에서 결승 진출전이 개최되고 마지막 날인 8일에 최종 결승전이 펼쳐진다.

LCK 서머 결승전은 지난해 약 3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국내·외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 수가 1일 기준, 약 400만 명 정도로 팬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지속가



주낙영 경주시장(좌)과 이정훈 LCK 사무총장(우) LCK 서머 결승전 개최도시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경주시 제공)

능한 글로벌 e스포츠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내다보고 있다.

MZ세대들에게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역사문화도시의 차별화된 공간 연출과 콘텐츠 제공으로 관광비수기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경주시와 함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 기억에 남을만한 대회 운영은 물론 경주가 가진 세계문화유산 등의 강점을 전 세계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한 e스포츠대회 LCK 서머 결승전을 경주에서 개최하게 돼 영광이다. 이번 대회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대회장 등 편의시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수해민, 구멍뚫린 하늘... 망연자실

급류1명 실종·차량 고립
대구·경북 비 피해 속출
대구소방출동건수 87건
울진선 주민 85명 대피

대구와 경북지역에 거센 폭우로 1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경북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2분쯤 경산 진량읍 평사리 소하천에서 침수된 차량을 확인하던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자는 이 여성의 직장 동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을 못하겠다는 연락을 끝으로 동료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날 오전 8시 28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 여성은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를 통해 이 여성이 차가 침수되자 밖으로 나와 확인하다 물에 휩쓸린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 등 장비 21대

와 인력 93명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진에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와 산사태 등에 대비해 울진읍 남리 등 위험지구 주민 85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대구에서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 현재까지 비 피해와 관련된 소방 당국의 출동 건수는 87건으로 집계됐다. 인명구조 5건, 배수지원 20건, 안전조치 62건이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11시 34분쯤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의 한 주택에서 하수구가 역류해 안방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집에 있던 주민 1명을 구조했다. 차량침수와 도로침수 피해도 잇따랐다.

9일 오전 6시 28분께 달성 구지면 유산리 가산교차로에서 차량 4대에 물이 차 소방 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구조 활동을 펼쳤다.

앞서 새벽 4시 39분께 북구 산격동 성북교 아래쪽에서 "침수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은 낙엽을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범람과 침수 우려가 있는 북구 팔거천과

동화천, 동구 금강 잠수교와 오목 잠수교, 대림교 지하도 하단, 수성구 가천잠수교, 동구 안심교 하단(북편 지하도)은 출입이 통제됐다.

이날 새벽 3시 1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내려진 대구에는 전날 오후부터 현재까지 15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오전 6시쯤 발송한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하천 주변과 급경사지 등 위험 지역에 가지 마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와 경북지역은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10일까지 30~80mm, 경북 북부에는 120~15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한편 영주-임하댐이 9일 오후 3시부터 방류량을 늘렸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에 따라 영주댐은 초당 150t, 임하댐은 300t을 방류한다.

영주-임하댐이 방류량을 늘리면 하류지역인 안동, 영주, 예천, 문경, 상주의 하천 수위 상승이 예상된다.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조여은 기자

인사시스템 무너뜨린 김일만 용단폭격

포항시 공무원 노조,
포항시의회 의장
인사잡질 파행 규탄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인사파행이 파국 국면으로 접어들 모양새다.

포항시와 시의회의 인사가 전국에서 가장 늦게 이뤄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됐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는 6월말과 7월초 모든 승진과 전보인사가 이뤄지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업무인수인계가 이뤄졌다.

하지만 포항시와 시의회는 7월초 승진인사만 이뤄진 채 아직 다른 부서로의 전보인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청에 근무중인 공무원들은 자신이 어디로 발령날지 알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손을 놓고 인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사 지연 사태는 포항시의 한 공무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애초 과장(사무관) A씨는 포항시에서 시의회 파견직인 명단에는 없었지만 의회에서 그를 파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승진과 명예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3명(행정 2, 시설 1)에 대한 인사가 꼬이기 시작했다.

결국 8일자로 예정된 전보인사는 하루가



김무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장은 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포항시지부 제공)

지난 9일까지 갑갑무소식이다.

이같은 행태를 보다 못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포항시지부가 항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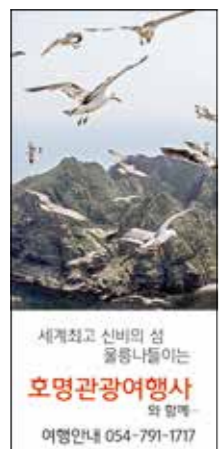
노조는 9일 포항시의회를 방문해 정면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포항시의 인사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인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을 규탄했다.

노조는 "포항시의회가 스스로 추천했던 공무원의 파견을 거부하고 애초 요청 직렬에도 없던 특정인을 고집해 인사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김일만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김무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장은 "인사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일만 의장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창명 기자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나들이는 호명관광영어행사

이행안내 054-791-1717

단체장 일정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0일 오전 경주시에 있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CC)에서 직업교육박람회에 참석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0일 오후 장애인체육관에서 열리는 '영호남 장애인 문화체육진흥교류전'에 참석한다.

2024 대구·경북 영서 나눔 골프프로잔치 D-15

한 번 군민은 영원한 군민 www.yyg.go.kr

[평생토록!]

요람에서 노후까지~ 1인당 최대 1억 4,405만원 지원!

환영받으며 태어나 아낌없이 지원받으며 건강하게 늙어갑니다 한 번 군민은 영원한 군민이라는 마음으로 평생 함께하는 영양군 누구나 행복한 초고령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양군 생애주기별 38개 지원시스템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출산정려금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 부모급여·보육비 지원 • 둘째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교육급여 • 위생용품 지원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 대학생 장학금 지원
- 할부생활관·영양학사 운영 • 마을건강 지원 • 청년일자리 특별지원 • 창업 지원 • 근무자 지원 • 진로상담 지원 • 주택임차료 지원 • 주·수이전 유공장려금 • 신용부부 일자리보증금 이자 지원 • 결혼장려금 지원 • 결혼비용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 임신제·출생제 지원 • 군민안전보험 • 각종 진료비 감면 • 농사 시실 학습 지원 • 농기계 구입 지원 • 주택수리비 지원 • 청인 및 주택구입 지원 •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 독감 무료 예방 접종 • 건강검진비 지원
- 치매 조기검진 지원 • 치매치료비 지원 • 군민안전보험 •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2



군위군, 벼 병충해 드론 공동방제 실시

군위군은 10일부터 지역 내 벼 재배농지 1013ha를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1차와 2차에 걸쳐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나섰다. 군위군농업기술센터는 6월말까지 벼 재배 농

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오는 8월초까지 벼 병해충 드론 공동방제와 함께 항공방제 약제 살포지도, 장마철 기상 조건에 따른 추가방제, 도복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약제 살포 요령 등 영농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벼 병해충 방제는 기존방제 방식에 비해 80% 이상의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어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인한 방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약안전 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재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달성군 직원들과 소통·공감의 시간 가져...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대구시장 공감대형성 취지

달성군은 지난 8일 군청 대강당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달성군 직원 간 소통·공감 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시장과 달성군 직원 간 소통의 자리를 통해 즐겁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대구시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달성군 공직자 6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크쇼는 '선진대국 시대로 가자'라는 주제로 홍 시장이 직접 진행했다.

MZ세대 공무원들에 대한 당부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TK 신공항, 대구 문화예술허브 조성(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컴플렉스) 등 대구시정을 비롯해 홍 시장의 스트레스 해소법, 인생의 타닝포인트 등 개인적인 질문까지 다양한 내용의 사전질문지 50여 개를 직접 읽고 답변하며 직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달성군은 지난 2년 동안 대구 제2국가산

업단지 선정,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대구 미래 5대 신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어 홍 시장과 달성군 직원들이 대구와 달성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이날 홍시장은 "최 군수는 전국에서 가장 젊고, 탁월한 능력으로 지난 2년 동안 달성군정을 훌륭하게 잘 이끌어왔다. 앞으로도 달성군이 대구 신산업의 심장이라는 자부심으로 대구 발전에 함께해주길 바란다"며 최 군수를 응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대형 국책사업들이 달성군에 유치됨에 따라 달성군은 대구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이자, 대구 산업의 심장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대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한반도 제2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달성군 직원들도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재훈 군수는 "바쁜 시간 내어 달성을 방문 해주신 홍준표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의 선진대국 시대를 선도하는 대구를 만드는 데 달성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 100대 피아노' 100인 피아니스트 모집

지역 피아니스트와 함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달성문화재단은 지역대표축제를 넘어 전국 유일무이한 종합예술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2024 달성 100대 피아노'에 출연할 100인의 피아니스트를 공개 모집한다.

달성군 개칭 100주년을 기념하며 시작돼 올해 11회차를 맞이하고 있는 '달성 100대 피아노'는 한국 최초의 피아노가 대구 사문진 나루터로 유입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문화적으로 풀어내며 매년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100인 피아니스트 모집은 피아노 전공자로 4년제 음악대학 기준 재학생 및 졸업생

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참가신청서 및 자유곡 1곡 연주 영상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음악협회 홈페이지(www.dgm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피아니스트에게는 소정의 출연료가 지급된다.

'달성 100대 피아노'는 기존에 양일간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축제의 내실을 다지고자 단 하루만 진행한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출연진들로 구성된 공연 프로그램과 더불어 포드존, 푸드존 등 부대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하여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예술감독에는 지난해에 이어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선정됐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과 프랑스 파리 고등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동아음악콩쿠르 1위, 비엔나르피 국제피아노콩쿠르 1위 등 국내외 주요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빈심포니오케스트라,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의 공연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 100대 피아노』는 전국적으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달성군의 대표축제다. 아름다운 무대를 함께 만들어갈 이번 100인 피아니스트 공개 모집에 역량 있는 지역 피아니스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북구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장관-대구시장상 수상 쾌거



북구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전략부문 유공기관 및 대구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전략부문 유공기관과 대구광역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

진사업 결과보고서와 우수사례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북구는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과 대구시장 기관 표창을 받았다.

북구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주민주도형으로 치매예방, 신체활동, 구강보건, 음주폐해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13개 사업 분야를 통합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다함께 건강나눔, 주민 건강증진사업'은 노인인구, 취약계층 현황, 보건인프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동 중심 주민건강협의체 구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적 이웃 건강나눔 활동 전개와 마을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해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주민 주도적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여 다 함께 더 건강한 북구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미경 기자

군위군, 호우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집중점검 실시

군위군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 5일~8일, 집중호우 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낙석, 사면붕괴, 토사유출 등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현장 및 산사태취약지역을 집중점검했다.

또 폭우로 임도 이용 시 피해가 우려되는 부계면 남산임도 외 2개 구간 24.62km에 대해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여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위군은 산사태취약지역 174개소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호우 및 장마 시 취약지역을 방문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비가 그친 후에도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군위군은 지난해 태풍'카눈'으로 인한 기록적인 강우로 산림피해가 많았으나, 6월 30일 장마

전에 산림재해복구사업(산사태복구 7개소, 사방댐 설치 3개소, 임도복구사업 4개소)을 모두 완료했다.

2024년 신규 사방댐 조성 2개소 및 계류보전사업 2개소 또한 준공하여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예방·점검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항"이라며 "집중호우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면 관계 공무원들의 대피 유도에 따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박재성 기자

수성구, 호주 자매도시 공무원 파견 연수 마무리

수성구는 해외 자매도시인 호주 블랙타운시 공무원으로서, 수성구에 3개월가량 근무하며 두 도시를 잇는 가교 역할을 맡았던 산토스레 지날드 씨(33·호주)가 파견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9일 밝혔다.

호주 서부 시드니의 지방 정부인 블랙타운시에서 조정·건축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산토스레 씨는 평소 국제교류와 K-POP 등 한류 문화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에 그는 블랙타운시 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는 외국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K2H)에 선발돼 수성구 파견연수 기회를 거머쥐었다.

지난 4월 말부터 수성구에서 근무를 시작한 산토스레 씨는 구청 공무원과 교류하며 한국 행정을 배우고 관련 경험을 쌓았다. 또 매주 월요일 직원들과 언어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수성못과 내관지 등 수성구가 자랑하는 우수 조경지를 수시로 둘러보기도 했다.

공식 연수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지만 수

성구와 호주 블랙타운시 간 긴밀한 교류 협력은 그가 귀국한 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조정 건축가인 산토스레 씨는 블랙타운시가 수성구에 영감을 받아 호주 현지에서 조성하는 '코리아 수성 가든(Korea Suseong Garden, 가칭)' 협업 프로젝트를 돕고, 이밖에 두 도시 사이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토스레 씨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해주신 수성구청 직원, 구민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도시 간 더욱더 활발한 교류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올해는 수성구와 호주 블랙타운시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라며 "블랙타운시에서 처음 외국지방공무원을 파견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블랙타운시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군위군, 대구시 편입 1주년 맞이 특강 개최

'더 커진 大邱, 군위를 품은 대구' 특별기획전과 연계, 정체성 고민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 소속 대구근대역사관은 오는 17일 대구근대역사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더 커진 대구, 도시 정체성 찾기'란 주제로 열린 역사문화 강좌를 개최한다.

2023년 7월 군위군 편입으로 더 커진 대구의 역사문화를 조명하고, 이를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더 커진 大邱, 군위를 품은 대구' 특별기획전(2024.5.30.-11.24.)을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기획전과 연계해 오는 7월에는 '더 커진 대구, 도시 정체성 찾기'라는 주제로 편입 1주년 기념 시민 특강을 개최한다.

대구시는 군위군을 편입하면서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갖게 됐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변화에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한데, 이번 특강에서 이런 고민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군위군 편입으로 거대 도시가 된 대구의 정체성을 찾아보고, 다양한 역사문화 줄기의 의미와 해석을 사회인류학적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강을 통해 대구 지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보고, 시민들과 새로운 대구의 정체성 찾기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특강은 사회인류학을 전공하고 영남지역의 문화 변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한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창언 교수를 초빙해 진행한다.

이창언 교수는 '도시마을의 민속문화'(공저)·'국가무형문화제 제44호 경산자인 단오제'(공저)·'10년을 바라본 경산'(공저)·'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무형문화유산(공저)' 등 지역의 민속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저서와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영남지역의 도시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 논문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조미경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일보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9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 영 숙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6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명문화대, '스컬데이' 개최

계명문화대가 지난 2일 라이온타운 베퍼짐에서 혁신창업 관계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보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스컬데이' 행사를 가졌다. 스컬데이는 계명문화대 내 달서구 1인 창조기

업 지원센터, 계명문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대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계명문화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신규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창업 정보 및 노하우를 토론하는

세미나로 진행됐다. 행사는 산학협력단 내 입주기업과 스타트업 교육 인교생 및 졸업생, 지역 및 대학,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박운배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정부지원 제도 정보와 인적네트워크를 얻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道 저출생 극복 우수사례... 전국 확산

경북도처럼 저출생 대응 잘하면 교부세 더 받는다

저출생과 전쟁 전면전에 나선 경북도가 중앙 정부와 협력해 저출생 극복 우수사례를 만들고 전국에 확산시킨다.

도는 9일 경북도청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담당 과장, 도 및 시군 관계관, 유관 공공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대책에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고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개최됐다.

회의는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도 대응 전략 발표 △시군 우수사례 발표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기본 방향과 정책 설정, 전국 단위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 개발과 중앙 정부의 정책 보완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저

출생 대응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교부 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분야에 지속 투자한다.

도는 대응 전략 발표를 통해 기존 대책 강화 및 심화 전략 선도 등 저출생과 전쟁 Next 대응 전략을 내놴다.

기존 대책 강화는 저출생과 100대 실행 과제 추진 점검 및 IPA 분석을 통해 사업·예산 구조 조정과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경북에서 모범적 시행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심화 전략 선도는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 사교육비 부담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구조적인 문제 대응 방안 마련·추진과 여성들이 지역에 돌아오고 머무는 '여성 친화 경북' 프로젝트 수립을 중점 추진한다.

도는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경북의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이 전략과 정책 방향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속도감 있게 현장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 저출생과 전쟁이 국가 인구 비상사태 선언으로 확대되었다며, 경북에서 먼저 모델을 만들고 실험해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 중앙정부와 협력할 건 하고 중앙부처가 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공백은 과감하게 보완해 저출생 극복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사진설명=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9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대응 전략 회의에 참석, 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경북도 제공)

고령에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2026년 완공

총사업비 98억원 확보 산업 전략적으로 육성

고령군에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이 들어선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 사업'에 고령군이 선정돼 총사업비 98억원을 확보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그린바이오 소재 표준화·대량생산·실증을 위한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바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98억원(국비 49, 지방비 49억)이 투입되는 '고령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은 식품 또는 공산품(화장품, 바이오소재 등)의 원료가 되는 작물을 표준화해 대량생산 가공 후 기업에 공급하는 첨단시설이다. 이곳은 다단형 재배구조의 스마트팜, 기업 협업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센터, 기타 시설 등을 갖춘 4694㎡ 정도의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이 곳 재배 식물로 새싹파프롱, 밀순, 모시풀, 단삼, 바질 등을 추천하고 있다.

고령군도 용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린바이오 소재 작물 선정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정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정책에 발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경북도에서 그린바이오 농업 육성 포럼을 개최하고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농식품부, 학계, 농업인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은 최첨단 재배 기술로 미래농업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가소득 모델을 제시하는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분야"라며 "지역의 특화된 농생명 자원을 발굴해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경북교육청, 2024 초등 SW-AI 교육 캠프

탐구·체험 중심 SW-AI 교육으로 미래 꿈 키워



경북교육청은 7,8월까지 하계 방학에 발맞춰 도내 각 지역에서 2024 초등 SW-AI 교육 캠프를 전개한다.

사업은 경북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SW-AI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SW-AI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는 경북교육청이 주최하고 창의 융합 교사연구회(초등 정보 캠프)가 주관하여 매년 울릉도와 각 지역을 찾아가 SW-AI 교육 캠프를 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울릉도 초등 정보 캠프를 시작으로 올해 총 21개 지역에서 캠프를 실시하며, 초등 SW-AI 교육 저변 확대와 지역 간 정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SW-AI 교육 활동 캠프는 지역별 특색있는 활동 주제('우리 아이(AI) 울릉 문제해결사' 등)와 최신 SW-AI 교구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친구와 함께 참여·협업·공유하는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6~10월 말까지 방학과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되며, 수준·단계별 SW-AI 교육 제공으로 초등학생들의 SW-AI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김성용 기자

공원식, 대왕고래 전진 기지 포항시민 우렁

포항지역발전협, 불공정한 입찰 공고 포항시민 실망

(사)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대왕고래 전진기지 불합리한 입찰 조건 '포항시, 석유 시추 용역' 불공정 입찰·제검토 요구와 관련, 포항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발전협의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포항 영일



만앞바다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한 항만시설과 하역 용역 입찰공고를 내면서 프로젝트의 전조기지 역할을 할 항구를 선정하는 입찰 조건이 공정하지 못해 포항시민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항만 하역 경험과 부두 접근성에서 포항이 감점 20점씩을 받으면, 다른 조건을 100% 충족하더라도 60점으로 석유공사의 커트라인인

70점을 받을 수가 없어 경쟁에서 탈락해 공경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포항이 지난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포항 촉발 지진을 일으켜 포항시민이 큰 피해를 보고,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포항 앞바다에서 추진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불합리한 입찰 조건으로 포항이 탈락하는 것은 포항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공원식(사진) 회장은 "석유공사는 입찰 조건을 변경해 공정한 입찰 조건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형명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전선민남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경주시, 장마철 대비 교촌한옥마을, 우수관로 정비

경주시가 교촌마을 일대 우수관로를 정비했다. 지난 7일 실시된 정비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과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과 쾌적한 관광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정비를 위해 준설 기계를 투입해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작업을 시행하면서 교촌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서은숙 경주시 관광컨벤션과장은 "이번 정비로

우수관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게 됐다"며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도로 파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교촌한옥마을 이외에도 금강대,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등 집중적인 호우 대비 시설물 점검을 완료했다.

경주 황리단길 상가 화장실 일부 개방

전체 상가 500곳 중 300곳 60% 화장실 점포주 동의 얻어 사용

경주시가 황리단길 내 300여곳 점포(상가) 화장실을 전면 개방한다.

시는 지난 달 황남시장 변영회, 황리단길 상가 변영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전체 상가 500여곳 중 60% 상가들이 방문객 요구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을 허락하기로 합의했다.

황리단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개성 넘치는 거리로 지난해는 1300만 명이 방문한 경주의 관광명소다.

반면 그간 포석로 공용주차장 화장실, 순해전 소공원 화장실, 대동원 화장실,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화장실 등 공용화장실 개수는 많지 않아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방문객들은 상가 방문 시 개방 화장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점포주 동의를 얻어 화장실을 사용하면 된다.

시는 이번 상가 화장실 일부 개방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위생 공간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황리단길 쓰레기통 추가 설치와 청소인원 추가 배치, 인도정비 등으로 환경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부사적지와 황리단길 일원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경주시 문화관광 통합 환승주차장 조성사업'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황리단길 상가 화장실이 일부 개방돼 방문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황리단길을 즐길 수 있어 더욱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경주시, '응답하라! 꿈꾸는대로' 운영

경주시립도서관, 청소년 독서진로캠프 참여자 모집

경주시립도서관은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과 협력해 새달 10일까지 지역의 중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독서 진로캠프인 '응답하라! 꿈꾸는대로'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4개 권역을 대상으로 모집했다. 경상권은 경주시립도서관이 선정됐다.

프로그램은 진로코칭 전문가 정경신 강사와 함께 하는 '탐험의 시작, 꿈 좌표 설정'과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진로여정 지도 그리기, 카카오프렌즈를 만들어 낸 권순호 캐릭터 디자이너의 명사 특강'이 펼쳐진다.

청소년들이 직접 자료실에서 진로관련 도서를 탐색하고 좋아하는 문장을 필사해 보는 시간 등이 마련돼 있다.

강좌는 10일 오전 10~오후 4시까지 지식정보 취약계층(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소속 중학생 등)을 우선 선발한다.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31일까지는 지역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립도서관 사서팀(054-779-8898)에 문의하면 된다.

승화건설조경, 복지사각지대 해소 앞장

월성동에 현금 200만원 기탁 어려운 이웃... 기부활동 실천

승화건설조경은 지난 8일 월성동 지역복지발전회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모아 행복금고에 현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2008년 2월 개업한 승화건설조경 남시원 대표는 "보통동 내 남촌마을 출신으로 고향인 월성동의 복지증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매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남시원 대표는 "이런 무더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더위와 시름을 이겨내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기탁받은 현금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월성동지역사회복지협의회(꿈꿈복지단)의 특화사업비로 사용된다.



사진은 황리단길을 찾은 관광객 모습

천군소하천 침수 예방 정비사업 준공 코앞

주낙영, "앞으로 시민 안전 편의사업 지속 추진 한다"

경주시가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정비에 나선 '천군소하천 정비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정비 사업은 보문천군구지구와 보문유원지 내 신평마을 주민들의 확실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군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난 5월부터 착공, 7

월 말 완공이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총 당됐다.

높이 2.5~3.5m 규모의 식생옹벽블록 130m 구간과 낙차보 20m 등이 설치됐다.

시는 지난해 10,11월까지 2개월 간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올해 2월 예비비 사용 승인이 이뤄지면서 사업이 본격화했다.

시는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보문유원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협약을 체결

한 바 있다. 현재 사업 공정률은 90% 수준으로 이번달 말 사업이 모두 완료된다.

천군소하천 정비가 완료되면, 신평마을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유사시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경주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라고 말했다.

경주로ON 앱 설치 사적지 무료입장

모바일서 경주로ON 앱 설치 회원가입...



경주시가 7~12월까지 사적지 무료입장 이벤트를 '경주로ON DAY'를 선보인다.

'경주로ON DAY'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2차 고도화 사업으로 매월 1~10일까지 관광객들이 지정된 사적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행사다.

행사는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스마트관광앱인 '경주로ON'을 홍보하고 신규 가입 회원들을 위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됐다.

무료입장 사적지는 김유진 장군묘, 무열왕릉, 오릉, 포석정 등 총 4곳이다.

무료입장은 모바일에서 '경주로ON'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매표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단 경주시민은 별도로 '경주로ON'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김재훈 관광컨벤션과장은 "경주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감성이 어우러진 도시로 점차 변화해 가고 있다. 이번 경주로ON DAY 이벤트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힐링되고 경주만의 역사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사진=경주시 제공

황성동, 깨끗한 환경 형성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지난 7일 용황임시주차장에 집결, 안전교육을 받은 후 용황지구 일대에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했다.

환경정비 활동에는 황성동행정복지센터 및 하나님의 교회 소속 150여명이 참여했다. 용황 임시주차장 및 주변공터와 주택가, 아파트단지, 상가 밀집지역에 버려진 각종 폐플라스틱, 비닐, 종이컵, 담배꽂초 등을 꼼꼼히 수거했다.

이승하 황성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청년들에 감사드리고 자랑스럽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감감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에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경산 김천 문경 상주 칠곡 예천



경산 오은영 박사 육아 토크

경산시는 지난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경산시민과 함께하는 오은영 박사의 슬기로운 육아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토크 콘서트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과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출산율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경산시 합계출산율은 △2021년 0.93명 △2022년 0.87명 △2023년 0.81명이다. 오은영 박사는 "안락한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강조했다.



김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김천시는 부곡동 1014-1 '부곡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함설립을 인가했다.

첫 재건축 정비사업이다. 부곡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2만0295㎡의 터에 432세대, 5동·432세대를 재건축할 것으로 계획되었다.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김천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89% 동의라는 높은 동의율로 재건축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美 고교생 문경 도자기 체험

미국 스토니브룩대학교 한국어 센터 고등학생 30여 명은 지난 6일 문경시 도예명장 유태근 작가의 방문요를 찾아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직접 체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유태근 명장의 지도를 받아 직접 도예작업에 참여하고 특히 라쿠가마 소성을 체험하며 도자기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도자기 체험은 학생들의 큰 호응 속에서 문경 도자기를 외국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

미국 스토니브룩대학교 한국어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모돌이 도전 HAT... 상주시 고유 체육문화 승화

(별칭 모돌이게임)

2024 상주시민체육대회 정식 종목 채택...발돋움

'모돌이 도전 HAT(별칭 모돌이게임)'이 2024 상주시민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상주시 대표축제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모돌이 도전 HAT으로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상주에서 모자와 함께

즐거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 상주세계모자 페스티벌이 경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돌이 도전 HAT'은 25~30여명의 참가자가 원형 대형을 이루 모자를 돌려쓰며 협동심과 단결심을 요구하는 기록게임이다.

상주시축제추진위원회가 기획하고 상주시체육회의 지원으로 전년도 첫 선을 보인 상주세계모자 페스티벌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다.

2023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에서 총상금 1400

만원을 걸고 읍면동 대항게임으로 진행,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말, 상주시축제추진위원회가 '모돌이 도전 HAT'에 대한 상표 및 특허출원을 완료하기도 했다. SNS 상에서는 '유튜브 쇼츠' 등으로 패러디돼 화제가 됐다. 아이돌 그룹 '세븐틴'(조회수 197만)과 유튜버 '팁일루션 노성욱'(조회수 664만)의 영상 등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강민구 상주시 체육회장은 "상주시민의 소통과 참여로 지역 단합과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모돌

이 게임을 제72회 상주시민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했다"라고 말했다.

윤재웅 상주시 축제추진위원장은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의 대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획한 '모돌이 도전 HAT'이 상주시민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기쁘다. 올해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에서는 상주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점차 상주시 고유의 체육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우리 모두 개령면 환경지킴이

김천시 개령면 새마을남녀협의회는 지난 5일 광천-남전리 일대에서 'Happy together 클린데이' 청결 활동을 했다.

Happy together 클린데이는 2021년부터 개령면에서 주민들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호 계몽운동이다.

이날 새마을 회원 30여 명이 참여, 도로에 버려진 각종 생활 쓰레기와 무단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며 거리 정화 활동을 펼쳤다.

방규립 새마을부녀회장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도로 위 쓰레기들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청소했다. 바쁜 농번기임에도 참여해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깨끗한 개령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봉사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임동환 개령면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령면 환경을 위해 클린데이에 참여해 주신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장마철에는 특히 담배꽂이나 각종 생활 쓰레기로 빗물받이가 막혀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령면 주민들도 이런 내용을 양해하시고 침수 피해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칠곡 직접일자리사업 발대식

칠곡군은 지난 8일 '2024 하반기 직접일자리사업' 발대식을 진행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한다.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은 9월 6일까지, 지역공동체사업은 11월 8일까지다. 총 52명을 선발·운영한다.

발대식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재기 강사를 초청,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했다.

근로조건 및 근무수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교육했다.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칠곡취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등을 안내하며 취업의지를 북돋아 줬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직접일자리사업이 근로의 소중함과 보람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욱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김천시민장례식장, 지역 곳곳에 온기 나눠

꾸준한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 전파 김천복지재단 성금 100만 원 기탁



김천복지재단은 지난 8일 김천시민장례식장으로 부터 성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김천시 남면에 있는 김천시민장례식장은 유족들과 시민들이 편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

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매년 꾸준한 기부활동을 펼치며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진영진 김천시민장례식장 대표는 "매년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마음 한편에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지역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천복지재단은 다양한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김천형 SOS 긴급지원 △희망복지공동체지원 △맞춤형 후원결연 △복지 차량 지원사업 등을 실시, 지역 주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예천군, 아토피·천식 질환 이해 높인다

아토피·천식 자조모임 아토피리 참여자 모집

예천군은 오는 9~21일까지 아토피·천식 자조모임 '아토피리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조모임은 오는 27~8월 17일까지다.

4주 간 매주 토요일 보건소 건강증진관에서 운영,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된 교육기관을 다니는 아동을 우선으로 8가족을 선착순 모집한다.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알레르기 질환은 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 식품알레르기 등이 있다.

프로그램은 경북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의 '알레르기 질환의 이해' 특강을 시작으로 스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천연 수제비누 만들기 △공기정화 식물 화분 꾸미기 △과일타르트와 레몬청 만들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모든 참여자에게 보습제와 기침품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모집 포스터 하단의 QR(휴대폰)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650-8032)으로 연락하면 된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자조모임을 통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토피·천식 안심 어린이집은 △국공립호반2차 △도담 △빛나는별 △성락 △성심 △아롱다롱 △어린이나라 △우방센터 △고은 △군립중앙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은 △단샘 △호명라온 △새벗유치원이다. 초등학교는 △용문 △예천동부 △예천 △유천 △용궁 △지보초등학교이다. 송영주 기자



상주시, 청년 창업자 커뮤니티 활성화

상주 청년들, 소통 동반 성장 나눔 장

상주시는 매년 지역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교육·멘토링 등으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는 사업별로 분산돼 있는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청년 창업자 커뮤니티를 활성화, 청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창업으로 지역에 정착하게 된 청년들과 창업에 관심이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소통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나눔의 장을 자주 마련한다.

지난달 28일에는 청년창업공간에서 '상주 청년 커넥트'를 열어 청년들의 관심사인 MBTI 뽀개기, 퍼스널 컬러 진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며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선배창업자와 예비창업자가 멘토-멘티가 돼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올해 스페셜 청년창업자 육성지원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 △생애최초 청년창업 희망키움 △청년창업 지역정책 지원 △시골청춘 뿌리내리 지원 △청년예비창업자 육성사업으로 총 23명의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고두환 미래정책실장은 "청년들의 창업 및 정착은 지역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청년이 지역의 활력소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상주시가 청년창업, 청년문화의 선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경산시, 차별화된 경산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산시는 8일 시청 별관1 회의실에서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여건 및 요

구 분석,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위해 마련됐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원, 시민참여단, 여성친화사업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탁기관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김명화 연구위원의 발표로 진행됐다.

용역 보고회에서 '함께 피우는 푸르른 꿈, 여성친화도시 경산'이라는 비전과 함께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적 평등 실현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별 정책과제와 방향이 제시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도시다. 2013년 여성친화도시에 최초 지정된 경산시는 2024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미경 기자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내가 바로 영덕 블루로드 안내 '길동무'다

대게좋은 블루로드-길동무 양성교육사업참가자 모집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이 '대게좋은 블루로드-길동무 양성교육사업' 참가자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다. 사업은 2024 지역관광추진조직(DMO)육성지원 사업의 하나로 기획됐다. '대게좋은 블루로드-길동무 양성사업'은 영덕

군의 핵심 관광자원인 블루로드 트레킹에서 여행객과 함께 걸으며 블루로드와 자연, 지역 문화 등을 설명해주는 전문 해설가를 교육, 양성한다. 신청 대상은 영덕군 주민이며 영덕 블루로드 A, B, C, D 각 코스를 방문객과 같이 걸으며 안내할 수 있는 체력을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29-8월 21일까지 진행한다. 매주 월-수요일 오후 2~6시까지 4시간 커리큘럼으로 주 2회 수업이 이뤄진다.

교육은 총 8회 실시된다. 교육을 90%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 수료증이 부여된다. '대게좋은 블루로드' 길동무 양성 교육은 △영덕 블루로드의 이해 △길동무의 역할과 자세 △영덕 문화와 관광자원 이해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등 이론교육과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습 교육이 병행된다. 강사는 트레킹에 대한 경험이 많고 영덕 관내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블루로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해설사를 분야별로 투입한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한다. 8회차의 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된 길동무는 블루로드 트레킹 프로그램의 길동무로 참여할 수 있는 우선 자격이 주어진다. 길동무 신청과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덕문화관광재단 누리집 공지사항(<https://ydc.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궁금한 점은 재단 관광마케팅팀(054-730-58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여은 기자



이서초, 흡연예방 교육

이서초등학교는 지난 8일 학교 강당에서 2024 흡연예방교육 레크리에이션 및 인형극을 관람했다. 유치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인형극과 레크리에이션 공연을 통해 흡연에 대한 위험성과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인형극을 통해 학생들은 주인공인 꿀초사냥꾼이 흡연에 빠져들어 그의 최후를 통해 흡연의 위험성과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알아가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중요성을 배웠다. 레크리에이션 오프닝 마술공연을 통해 아동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고 흡연에 대한 질문들에 대답하며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영덕군, 환경정화 활동 나서

영덕군이 환경정화 운동으로 분주하다. 피서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인된다. 영덕군 새마을지도자 남정면협의회와 부녀회 회원 40여명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8일 장사해수욕장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협의회 이주 회장은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선물하고 싶었다"고 취지를 말했다. 김형규 남정면장은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관계자와 해수욕장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울릉 노인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울릉군이 마련한 '노인소비자 피해 예방교육'이 인기가 높다. 소비자 정보 및 합리적인 선택 능력 부족 등으로 악덕 상술에 노출, 피해를 입고 있는 탓이다. 때문에 군은 지난달 25일 노인복지관에서 인소비자의 소비생활 안전과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해 '노인소비자 피해 예방교육'을 운영했다. 예방교육은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지역경제연구소와 연계했다. 이날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1부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2부 'ATM기 사용 교육', 3부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을 했다. 울릉노인복지관은 7월 시니어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한다. 정유한 기자



"행복경로당 반찬 날라요" 울진군은 관내 25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12월까지 2024 행복경로당 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행복경로당 반찬 지원사업은 정기적으로 반찬을 지원해 어르신들에게 고된 영양을 공급하여 결식예방 및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에서 한끼 식사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농어민들에게는 작거나마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울진군 제공)

울진군, 지방시대 전문인재 양성 총력

변화, 열정, 섬김 행정 구현 혁신 인재 양성

울진군이 울진군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4 상반기 전직원 직급별 역량강화교육 했다. 교육은 지난달 17-25일까지 울진해양레포츨센터에서 열렸다. 군은 앞서 6회에 걸쳐 시행된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으로 울진군 전직원이 직급별로 지향해야 할 역할을 재정립, 직무 전문성을 강화했다. 다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따라 전직급 공통특강을 4회 추가 개최하여 직무 전문성을 보완·강화한다. 앞서 시행된 직급별 역량강화교육은 직급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교육기회의 부재를 극복하고, 각 직급에서 요구되는 리더십 및 직무 역량을

향상시킨다. 군은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고급관리자 직무연수 과정 △6급 대상 중간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 및 핵심리더 양성연수 △7급 대상 '중급행정 역량 강화 교육' △8급 대상 '행정실무 역량 강화 교육' △9급 대상 기초행정 역량 강화 교육 △공무직 대상 직무 및 기본소양 강화 교육을 했다. 군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한다.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전직급 공통특강을 9-16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한다. 회차별로 △1기 공직사회 혁신특강 △2기 2024 트렌드코리아 특강 △3기 공직사회 소통·공감역량 강화 특강 △4기 친철역량 향상 및 인구조적 특강을 한다. 매 회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들이 전

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전직원 대상 '변화의 바람! 더 큰 성장!'을 주제로 군수 특강도 함께 진행, 울진군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직원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군은 변화하는 행정업무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신규 공직자의 공직생활 적응을 위한 임용 예정자 교육 및 지역현안 문제 대응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직원교육을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실무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으로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직원교육을 다각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청송소방서... 소방안전 민·관 한마음

청송소방서는 9일 소방안전 분야 민·관 협력 기틀을 다지는 청송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청송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는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강변 건설 대표 한광수 회장을 비롯한 기존 회원 9명 그리고 이번 신규 임파자 8명을 더해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소방안전협의회 위촉식 및 간담회는 △신임 회원 위촉식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문화 확산 방안 △여름 휴가철 화재예방안전대책 추진 △협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광수 소방안전협의회장은 "새로 온 8명의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청송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 운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서와 협의회가 협업, 지역의 소방 안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시원한 바다가 부르는 여름... 영덕 해변으로 가요

영덕군, 7개 해수욕장 7월 12일 일제히 개장

영덕군이 지정 운영하는 △대진 △고래불 △경정 △오보 △하저 △남호 △장사 등 7개 해수욕장이 오는 12일부터 일제히 개장한다. 해수욕장은 새달 18일까지 38일간 운영된다. 오전 9~오후 6시까지 개방되나 성수기인 오는 20일부터 새달 4일까지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한다. 대진해수욕장은 청소년 어울마당, 광어 맨손잡이 체험, 백합줍기 체험을 한다. 장사해수욕장은 상시 어린이 버블 풀장을 운영한다. 매주 주말에는 주말 최기정과 함께하는 해변 페스티벌이 열려 한여름의 추억을 선사한다. 고래불해수욕장은 새달 8-11일까지 열리는 비치사커대회와 해변 노래자랑, 백합줍기 체험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군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위해 장구군이나 대장군과 같은 유해 세균 수질검사, 백사장 모래 유해 중금속 검사 등을 진행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격주로 추가 검사를 시행해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고래불해수욕장 모습 (사진=영덕군 제공) 해수욕장 개장 중에는 비치 크리너 가동해 해수욕장의 위생과 컨디션을 깨끗하고 유지하고 이 시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독성 해파리와 상어 출몰을 막기 위해 차단망과 그물망을 설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울진해양경찰서와 합동현장교육을 한다. 인명구조요원과 군·경찰·해경·소방서 등 127여명의 인원을 현장에 배치한다. 일몰 후에는 순찰 강화로 각종 예방에 앞장선다. 김광영 영덕군수는 "영덕경찰서와 울진해양경찰서, 영덕소방서, 운영위원회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인명사고 제로(ZERO)를 기본목표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차용대, 경북농협 으뜸조합장상 수상

경영우수 농업인 실익증대 이바지한 공로 인정받...

차용대 새청도농협 조합장이 9일 농협 경북지역본부 최고 권위의 ' 으뜸조합장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농협 경북지역본부에서 열렸다. 농협 경북지역본부 ' 으뜸조합장상'은 경북 지역농협 조합장 중 계통·상생 발전, 농가소득 증대, 창의적 사업추진, 대외활동 및 단결 등 협동조합이념을 알리고 경영에 모범이 되는 조합장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경북농협 최고 권위의 상이다. 차 조합장은 2019년 새청도농협 조합장으로 초선 당선 후 2023년 조합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무투표 재선에 성공, 현재 청도군 체육회장까지 겸임하고 있다. 2019년 당선 이후 2023년 말 기준 총 자산 2221억 원(18년 말 대비 807억 원 성장), 상호금융예수금평균 1740억 원(2018년 말 대비 533억 원 성장), 상호금융대출금평균 1417억 원(18년 말 대비 423억 원 성장)의



경영 성장을 이뤘다. 경영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사업장 확장 이전, 농산물공판장 확장 이전 및 전자경매 도입, 복숭아·뽕은감 공선호 조직 등 농업인 실익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청도군 지역농협 최초로 게이트볼 및 피크골프 대회를 열어 조합원 체력 증진 및 문화생활 발전에 한 몫했다. 무엇보다 차 조합장은 경제사업장 지방임대 태양광사업 참여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동참,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펼쳐 환경오염 예방 및 깨끗한 농촌 만들기 실현하는 등 범농협 ESG 경영 확대에 큰 획을 그었다. 조여은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경북 북부지역 지난8일 오후 160mm 물폭탄 맞다

지자체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

■영주시, 선제적 주민 대피 등 호우 피해 예방 '총력'

영주시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 8일 오전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실·국·소장과 19개 읍면동장, 13개 협업부서장 등이 참석해 호우 피해 현황과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회의에서 박 시장은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 대피 검토 및 붕괴위험지역 출입 통제 △피해 현황 신속 파악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하천변 등 상습 침수지 점검 △농작물 피해 점검 및 방제 대책 등을 지시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국지성 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총력 대응해 달라"며, "특히 산사태 및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정보를 신속히 안내해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오후 9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초기대응 단계를 가동했다.

이어 산사태 예측 정보에 따라 산사태주의보를 발령, 비상 1단계 근무를 실시하고 선제적으로 7일, 8일 2차례에 걸쳐 풍기읍,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단산면 취약·위험지구 등 20마을을 주민 107세대 168명 대피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8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의 관내 지하차도 3개소 및 도로 1개소를 통제해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고 긴급재난문자, 옥외경보방송, 스마트마을방송 등을 통한 안내 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봉화군, 장마철 산사태 취약지역 긴급현장 점검

봉화군은 지난 7~8일 이틀간 이번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 취약지역과 연결 인가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배진태 부군수는 지난해 산사태 피해로 재해 복구 사업 중인 춘양면 학산리와 산사태 취약 지역인 법전면 소지리, 소천면 현동리, 명호면 고계리, 상운면 운계리 그리고 봉화군 지정 소지리 마을 대피소(고노동 경로당)를 방문해 산사태 취약지역의 우기대비 안전조치 실태를 살폈다.

봉화군은 산사태취약지역 222곳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활용해 취약지역을 방문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 국민행동요령과 대피장소 안내에도 힘쓰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18일에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호우에 대비한 담당자 산사태 대응 역량 강화 및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해 재난대비 산사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배진태 부군수는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재해 취약지역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정비와 점검을 통해 관내에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군민의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성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긴급점검

성주군은 지난 8일 호우주의보 및 9일 관내 일부 지역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중 위험도가 높은 A등급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지반 붕괴, 토사 유출에 따른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산사태취약지역대피소, 대피경로 확보 여부 등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성주군은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5~10월) 내 산림재해의 선제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산사태대응상황실을 5월부터 운영 중이며,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통한 연 2회 이상 산사태취약지역 현장 점검 및 산사태취약지 안내현수막 설치, 응급 복구 등을 시행 중이다.

이병환 성주수는 "장마 및 집중호우 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마을방송 및 재난문자 수신 확인 및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 발령으로 사전주민 대피 안내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봉화군-해운대구, 자매결연

봉화군은 9일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해운대구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현국 봉화군수, 권영준 봉화군의회의장을 비롯한 봉화군 실과소장 등 18명과 해운대구 김성수 구청장, 해운대구의회 심운정 의장 등 해운대구 측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봉화군과 해운대구는 2023년 11월 교류를 시작으로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상호발전과 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 및 활용하고, 행정,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양 도시 간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지자체가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협약이 양 지자체 간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라며 "진취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지자체가 상상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주군, 힐링프로 프로그램 운영

성주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6개 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를 지정해 지역 주민 대상 총 30회기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는 스피드·감각·회상·음악·운동 등 다양한 영역의 인지중재 프로그램 △감염병관리·치매·만성질환 등 건강생활실천 교육 △힐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해 주 1~2회 운영 중이다.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국립 김천치유의 숲과 협업체하여 아로마 테라피, 산림공예 테라피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주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심리·정서적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고령군 고품질 샤인머스켓 교육 실시

포도 전문 지도사 초빙해 2022년부터 3년째 맞춤 교육

고령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및 농가 현장에서 포도작목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8월 고품질 샤인머스켓 과원 관리"재배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임병영 지도사는 8월 포도 과원 물관리, 병해충관리, 생리장해관리, 비료관리 이론 교육 후 다산면 나영안 농업인 농장으로 이동하여 샤인머스켓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규 포도 재배 농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포도 전문 지도사를 초빙해 2022년부터 3년째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지역특화시범 사업을 지원하여 본 사업에 맞추어 4월 '월별 포도 과원 관리', 5월 '화수정리 실습 및 생장조정제 처리 방법' 6월 '샤인머스켓 알숙기' 교육을 실시했다.

2024년에는 매달 1회씩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다음 달을 대비하기 위한 '월별 포도 과원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기술센터의 지역특화시범사업을 통해 '아임샤인'이라는 포도작목반 공동브랜드 개발을 완료해, 김명규, 나영안, 최종대 3명의 선도 농가가 올해 아임샤인 브랜드 고품질 입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샤인머스켓 상표 출원된 '아임샤인' 브랜드를 고품질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총성 고객 확보 및 가격 결정권을 농가가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포도작목반이 원활히 교육을 잘 받고 재배기술을 익혀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샤인머스켓의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 및 브랜드화(아임샤인)가 필수적이다. 고령군 포도작목반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



농가의 위험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ASF 발생농장이 대부분 산림인접한 위치에 있어 야생멧돼지와의 차단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에 군에서는 야생멧돼지의 차단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전문 드론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해 동부권 산간지역에 분포한 양돈농가 21호에 대해 농장 주변 야생멧돼지 기피제 드론 살포작업을 7월 26일까지 실시한다.

또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약 800kg, 멧돼지 기피제 400kg, 구서제 230kg를 지원하고, 전담관을 통해 매일 방역 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여부 등에 대해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집중호우 시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의 바이러스가 토사에 휩쓸려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 주변 배수로 정비를 바란다"라며 방역 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성군은 인접지역인 안동, 예천의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 및 관내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됨에 따라 동부권 산간 지역 양돈농가 대상으로 ASF 차단방역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멧돼지 기피제 살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ASF는 전국 양돈농장에서 6건 발생되었으며 최근 영천(6.15), 안동(7.2), 예천(7.6)에 발생되었고, 의성군 전곡·옥산·안평·안사면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관내 양돈

영천시, (주)무계바이오 선적식 "베트남 사로 잡은 비료!"

영천시의 (주)무계바이오 농업회사법인인 9일 베트남 수출 기념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선적식에서는 최기문 영천시청, 김용문 영천시의회, 김봉기 한돈협회 영천시지부장, 손후진 대한산림경제회 대구경북지부장, 북정석 경상북도 축산과장, 전재업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본부장 등이 참석해 선적식을 축하했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컨테이너 27개, 약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양이며, 대만으로는 1톤가량의 시제품을 추가 선적한다.

영천시 동남아 무역사절단에 참여했던 (주)무계바이오는 베트남과 대만 수출상담회에서 총 6건, 4,600천 달러의 수출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에서의 친환경 비료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선적식을 통해 영천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 진출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앞으로 수출 기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간 28주년

※ 접수기간 : 선착순(입금자순)마감

2024 대구광역시일보 영덕 사랑나눔 gOLF 큰잔치



7월 24일 수요일 | 참가자 전원
영덕오션비치 골프&리조트 |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 행사장소 : 오션비치 2층 대식당

참가규모 총40팀(160명)

접수기간 ~**선착순마감**(입금자순)

2024년 7월 24일 오전 11시 13분 ~ 순차티오프

참가신청

- 참가자격 : 전국 남·여 아마추어골퍼
- 당일 참가비 : 23만원(그린피18h, 카트1회, 저녁만찬, 참가 시상품등)
- 1박2일 참가비 : 45만원(그린피36h, 카트2회, 저녁만찬, 숙박, 조식, 참가 시상품등)
- 참가비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 김영숙
- 선입금 : 선착순마감(신청확정 후 취소시 환불불가)※본인이 양도는 가능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시상내역

- 매달리스트(통합) : 아이언세트
- 신페리오 우승(통합) : 풀세트
- 신페리오 준우승(통합) : 아이언세트
- 신페리오 3위(통합) : 드라이버
- 니어리스트(남·여) : 퍼터
- 롱 기스트(남·여) : 드라이버
- 이글상, 최다 버티, 파, 보기, 더블파등
기타 상품지급!

<대회 참가 연예인>



사회 김용일



가수 유순실



가수 백봉기



가수 양혜승

※출연 연예인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